

지식을 창조하는 대학!

송자 |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세상의 다른 어떤 조직이나 제도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시대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인류지식의 수호자이자 창조자로서의 기본사명은 크게 변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무한경쟁시대에서는 대학이 어떤 인재를 양성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무한경쟁시대에서는 지식의 수호자도 필요하지만 지식의 창조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식의 창조자를 양성하는 대학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초대국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학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한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선두에 서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정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대학개혁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 같다. 개혁의 방향도 원론적인 면에서는 거의 같은 것 같다. 지식을 창조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각론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가서는 서로가 다른 것 같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양성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꼬리를 물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지만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결국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식의 창조자를 양성하여야겠다는 것이다. 지식의 수호자만을 가지고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식을 창조하는 대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대학들을 참고 할 수밖에 없다. 첫째로는 교육도 투자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류 기업들이 세계의 일류 기업들과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참고하면 된다. 우리는 교육을 위해 특히 지식을 창조하는 대학을 건설하기 위해 얼마의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투자없이는 재수가 좋아서 한두 번 좋은 지식을 창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위 지속적인 성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투자에는 반드시 관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진부한 용어인지는 몰라도 대학도 경영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기업처럼 경영하라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 맞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지식을 창조하는 대학은 우리가 자주 듣는 '자율경영'을 하여야 한다. 자율경영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경영이다. 그런데 책임은 내가 약속을 하였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자율적인 경영보다는 타율경영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시에 의하여 움직여 왔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모두를 다 잘 하려고 하다가 모두 잘 못할 수도 있다. 즉, 지식을 수호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식을 창조하는 역할은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자율성이 약하면 모든 것이 획일적이 되기 쉽다. 대학은 획일적이 되어 가지고는 지식을 창조할 수 없다고 본다. 지식을 창조한다고 하여도 몇 부문에만 국한되어 질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별로 경쟁력이 없게 된다.

오늘의 세계는 다양한 세계다. 대학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융합의 순열조합 속에서 다양한 대학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 창조의 기회는 증가된다고 본다. 우로 가는 대학, 좌로 가는 대학, 서 있는 대학, 앞으로 가는 대학, 뒤로 가는 온갖 모습의 대학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창조하는 대학은 개방된 즉 세계화된 대학이어야 한다. 세계 누구하고든지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더불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폐쇄된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기 보다는 지식을 수호하는 데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는 대학일 것이다. 오늘의 지식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같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며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학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를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위해 지식을 창조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가져야 한다.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의 대학이 되도록 아낌없는 후원을 하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상학과 졸업하고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하였다. 케네디컨설팅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총장, 국경영학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명지대학교 총장, (주)대교 회장,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이사장,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감사,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에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회계원리」, 「21세기 대학경영」, 「한 가지라도 꼭 부러지면 되는 거요」, 「함께」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